

소설 속 ‘그녀’의 번역 가능성 고찰: 한강 『채식주의자』의 「나무 불꽃」 한영 번역본을 중심으로

박 미 정
(부산대)

1. 서론

번역에 있어서 등가 실현은 이를 수 없는 이상인 동시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다. 번역학자들은 단어부터 독자가 느끼는 반응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등가를 논의하고 번역 방법론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논의에는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는 문제가 늘 포함되는데, 이는 원천 언어에 가깝게 번역할 경우 원작의 손상이 적은 반면 번역된 언어가 부자연스러워서 가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목표 언어에 가깝게 번역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이해하기는 쉬우나 원작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 작품인 *The Vegetarian*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소설의 번역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원천 언어를 중심으로 번역할 것인가 혹은 목표 언어에 가깝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추구라는 기본적인 고민과, 누가 번역할 것이며 번역자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실질적인 주제도 포함되어 있다. 선행된 연구에서 이인규(2017)는 *The Vegetarian*이 원문을 벗어나 자유롭게 번역되면서 번역 오류와 원문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려한 반면, 신혜정(2017)과 이강선(2016)은 *The Vegetarian*이 원문과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다시쓰기라는 측면에서 번역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이형진(2016)은 문화적 헤게모니라는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 과정과 그 수용을 논하였는데, 한국문학의 위치가 무엇인지, 누가 한국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원문과 번역문 표현의 단순한 비교로만 다룰 수 없다. 번역자들은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들은 언어적 요소, 텍스트 장르, 출판 시장의 흐름, 개인적인 취향, 문화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양한 번역 상황 및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소설 번역의 평가에 대한 논의는 기술 번역과 달리 톤, 문체, 유연성, 독창성, 문화적 배경 지식, 모호한 표현의 해석, 표현의 반향, 원문에 대한 겸손한 태도 등 많은 면에서 좀 더 세심한 고찰을 요구하는데, 이는 소설이 문학작품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Landers 2001). 만약 문학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언어 간에 차이가 있다면 번역에 따라 주제, 암시, 분위기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설 번역은 문학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논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단순히 표현의 지시적 의미를 옮기는 것을 넘어 작가의 서술 관점, 주제 표현, 전개 방향, 언어적 차이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관점에서 한국 소설의 영어 번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소설 속 ‘그녀’의 영어 번역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한국 소설 속 3인칭 대명사는 초점 표지¹⁾라는 독특한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데(안

1) 서술자가 한국 소설 속 중심인물을 특정한 명칭이나 고유 명사로 부르지 않고 ‘그녀’ 혹은 ‘그’로 지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설 도입부에서 서술자가 주요 인물을 선행하는 대상 없이 바로 ‘그녀’ 혹은 ‘그’로 지칭할 때 독자는 해당 인물이 서술자가 주목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녀’ 혹은 ‘그’라는 표현이 서술자의 초점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 것이다.

소진 2008), 이는 작가의 서술 전략이 드러나는 요소로 영어의 3인칭 대명사에는 없는 기능이다. 게다가 본래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는 언어적으로 영어의 3인칭 대명사와 대응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번역된 표현을 통해 번역자의 전략과 재량의 범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소설 속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 '그녀'의 등장과 그 기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3인칭 대명사로 번역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어 텍스트의 독자가 어떻게 3인칭 대명사의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아무래도 번역자는 생략된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를 다시 재현해 내면서 영어 독자의 이해도를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3인칭 대명사에 대해 정리를 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채식주의자』의 세 번째 중편소설인 「나무 불꽃」의 '그녀' 번역을 분석할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그녀'가 she(혹은 her)로 번역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명시적 표현이나 번역자만의 새로운 표현으로 재탄생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에 따라 '그녀'의 함의(중심인물의 초점화)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볼 것이다.

2. 한국어 3인칭 대명사 '그녀'

한국어의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사람이나 아니냐에 따라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나뉜다. 인칭대명사는 다시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뉘며,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따라 근칭, 중칭, 원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인칭의 근칭은 이이, 이애, 이분, 중칭은 그, 그이, 그애, 그분, 원칭은 저이, 저애, 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는 대명사가 그리 발달한 편이 아닌데, 특히 3인칭 대명사의 경우 '그'를 제외하면 단일어 형태가 잘 발견되지 않고 명사와의 복합형으로 주로 쓰이는 게 보통이다. 여기서 삼인칭 대명사 '그녀'는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문학작품이나 편지와 같은 문어체에서 '그'에 대응하는 여성형 정도로만 쓰인다(고영근·구본관 2008).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녀'가 소설과 같은 상상적 텍스트에서는 유난히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김일환 2013: 174-75). 이러한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라는 표현의 탄

생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어에서 3인칭 대명사로 ‘그’, ‘그녀’가 사용된 것은 현대에 와서이며, 중세국어 시기까지만 해도 3인칭 대명사라고 할 만한 것은 지시대명사 ‘더’가 제한적으로 3인칭으로 전용되어 쓰이는 정도였다(이기문 1978: 336-37). 사실 한국어는 주어라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중시되지 않았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우나 애매한 경우를 빼고는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에 의해 삼인칭 대명사가 근대소설 속에 도입되었고, 근대문체를 정립하며 새로운 담론체계를 만들었다(안영희 2001: 168). 박현수(2002: 128)는 한국 소설 속 3인칭 대명사가 초점화자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점화자란 서술자가 인식하는 중심 주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안소진(2008)의 연구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해당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단편소설 중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작품 15편을 골라 그 기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 ‘그녀’가 주요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주변 인물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15편 중 8편)가 다수 발견되었다. 주변 인물은 인물의 이름이나 보통명사로 반복하거나, ‘개, 그 친구, 그 사람’ 등의 표현을 써서 지칭한 반면, ‘그’, ‘그녀’는 해당 중심인물만을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명사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녀’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내면 탐구, 사적 체험에 천착하는 소설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선행사 없이 소설의 도입구에 바로 등장하고 여성 인물이 여럿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및 상황의 중심인물만을 일관되게 가리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안소진 2015). 이는 『채식주의자』의 세 번째 중편 「나무 불꽃」의 설정과 같다. 「나무 불꽃」도 도입부터 ‘그녀’로 시작하며 내면의 탐구, 사적 체험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그녀’라는 표현은 오직 주요 등장인물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나무 불꽃」의 ‘그녀’라는 표현은 주요 등장인물을 초점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여기서는 ‘내적 초점화’를 일컫는 것이다. 즈네프는 전통적인 서술에서처럼 전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마음속을 들락거리는 형을 무초점, 등장인물 안에 시점을 두는 경우를 내적 초점(주인공의 시점을 고정시키면서 서술은 작가가 맡는 경우), 서술자가 전혀 등장인물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외적 초점으로 나누었다(권택영 1995: 242-3)

3. 한국어 '그녀'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누베르트와 쉬레브(Neubert and Shreve)(1992: 104)는 번역시 원천 텍스트 속 응집 메커니즘을 목표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목표 텍스트에 알맞은 응집 메커니즘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번역자의 업무는 원천 언어 메커니즘을 토대로 원문의 의미를 분석하고 목표 언어의 메커니즘에 맞게 의미를 재현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뉴마크(Newmark)(1988: 19)가 설명한 일반적인 번역과정에도 부합한다. 그는 번역 과정을 네 가지 레벨로 설명하였는데, 원천 텍스트 레벨에서 출발해서 지시 레벨(지시하는 대상 혹은 사건 등을 이해)을 수행한 후, 응집적 레벨(일반적이고 문법적인 이해와 재현)을 지나 자연스러움의 레벨(독자에 알맞게 표현)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이때 원천 텍스트 레벨과 지시 레벨은 원천 언어의 메커니즘 아래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해당하고 응집적 레벨과 자연스러움의 레벨은 목표 언어의 메커니즘에 맞게 구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과정을 「나무 불꽃」의 '그녀'를 번역하는 과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원천텍스트 레벨에서 소설의 텍스트를 읽고 지시 레벨에서 한국어의 '그녀'가 가리키는 대상과 '그녀'라는 표현이 나타내는 서술적 함의를 파악할 것이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영어에서는 주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잘 생략되며 '그녀'가 선행하는 대상을 나타내지 않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서술자의 입장에서 초점화한 대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응집적 레벨에서는 목표언어로 옮길 때에 '그녀'를 명시적인 표현(고유명사 등)으로 번역하거나 영어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she(혹은 her)로 번역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움의 레벨에서 독자가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정을 할 것이다.

응집적 레벨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의 이해도이다. 수사학적 측면에서 영어의 대명사는 글의 응집성을 이루는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선행사가 인칭대명사의 백업 시스템으로 기능을 하면서 인칭대명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 이때 선행 정보는 독자에게 명확하고 독자의 배경 지식 내에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Kolln and Gray 2012: 90). 나파와 아놀드(Nappa and Arnold)(2014: 60-61)는 이러한 과정을 영어 독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자세

히 설명하였다. 그들은 독자가 저자의 의도대로 대명사를 이해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문법적인 것으로 독자가 앞 절의 모든 대상을 해당 대명사에 맞춰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독자가 담화 문맥 내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이때 텍스트는 지시하는 대상에 관해 독자와 상호적으로 관점을 수용해 나가면서 공통된 배경지식을 확립한 상태여야 한다. 세 번째 경우는 독자가 대명사를 접했을 때 자신이 중점을 두고 있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네 번째 경우는 저자가 제공하는 문맥적 신호들 사이에서 지시 대상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다. 저자는 종종 담화에서 중점을 두는 항목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독자가 이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나과와 아놀드가 설명한 독자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번역자가 인칭대명사를 목표언어(영어)로 구현하는 과정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번역자가 재현한 표현이 한국어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서술적 함의(중심 대상의 초점화)를 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볼 것이다.

4. 번역 사례

4.1 작품 선정 및 연구방법

한국 소설 속 ‘그녀’의 영어 번역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중 세 번째 중편소설 「나무 불꽃」과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번역한 *The Vegetarian*의 “Flaming Trees”를 상호 분석할 것이다. 「나무 불꽃」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해당 소설 속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한 주요 인물만을 ‘그녀’로 지칭하기 때문이다. 비중이 높은 다른 여성 인물이 있음에도 주요 인물만을 ‘그녀’로 지칭하는 표현법은 앞서 언급했던 해당 인물의 초점화 기능을 나타내며, 이러한 표현은 번역에서 때때로 변환되어 나타날 수 있다. 원문과 번역본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녀’의 번역 가능성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작품을 사례연구로 삼은 또 다른 이유는 번역자의 가시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자는 비가시적인 존재인데, 해당 작품의 경우에는 맨부커 인터

내셔널상을 수상하면서 번역자의 번역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보도되었다. 번역자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에서 번역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분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항목에서 '그녀'의 번역을 살펴보겠다. 먼저 '그녀'를 대응적 인칭대명사인 she(혹은 her)로 번역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 후 '그녀'를 명시적 표현(고유명사 등)으로 변형하여 번역한 사례를 논의하겠다. 이러한 논의에는 영어 독자의 인칭대명사 이해와 '그녀'의 초점화 기능이라는 함의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번역자의 인터뷰와 번역 이론을 통해 그 전략을 추론해 볼 것이다.

4.2 사례별 분석

4.2.1 '그녀'를 she(혹은 her)로 번역한 사례

『나무 불꽃』의 도입부는 '그녀'로 시작한다. 처음에 독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녀'의 정체는 두 번째 챕터³⁾(152 페이지)에서야 “그녀의 여동생 영혜”라는 표현을 통해 영혜의 언니임이 드러난다. 독자는 『채식주의자』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중편소설의 내용을 토대로 '그녀'가 인혜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은 도입부의 원천텍스트(ST)와 목표텍스트(TT)이다.

(ST 1)

그녀는 비에 젖은 도로를 바라보며 서 있다. 마석읍 터미널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이다. 거대한 화물차들이 굉음을 내며 일차선을 질주해 지나간다. 빗발은 그녀의 우산을 뚫고 들어올 듯 거세다.

그녀는 아주 젊지 않다. 딱히 미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다만 목선이 고운 편이고 눈매가 서글서글하다...

그녀의 눈이 잠시 빛난다. 기다리던 버스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도로 내려가 팔을 뻗는다. 맹렬히 달려오던 버스가 속력을 늦추는 것을 본다. (한강 2007: 151-2)

3) 챕터 구분은 원문의 * 표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TT1)

She stands and looks out at the rain-swept road. She is at the bus stop across from Maseok terminal. Huge goods vans thunder past, speeding along in the fast lane. The raindrops drum against her umbrella, so forcefully it seems they might rip through the material.

She isn't really young any more,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call her a beauty, exactly. The curve of her neck is quite attractive and the look in her eyes is open and friendly...

Her eyes glimmer briefly; the bus she has been waiting for has appeared in the distance. She steps down into the road. She watches as the bus, which had been tearing along at a great pace, slows down. (Smith 2015: 123)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자는 ‘그녀’를 **she**로 번역하였다. 이로써 영어 번역을 읽는 독자 또한 한국어 원문을 읽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존재를 알 수 없다. 다만 **she**가 중심인물이며, 서술자가 중점적으로(초점화 된) 다루는 대상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한국 소설에서는 ‘그녀’로 도입부가 시작될 때 독자는 이를 소설의 전형적인 양식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영어 독자의 경우 선행사 없이 인칭대명사가 등장하여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다. **a woman**이 아닌 **she**로 시작하면서 영어 독자에게는 첫 문장의 **she**가 유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문장의 **she**는 한국어의 ‘그녀’라는 표현이 가지는 함의(중심인물 초점화)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기사에서 번역자는 ‘늘 원작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밝힌바 있다(황주원 2016. 6. 15).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도 하였다(김보경 2016. 3. 1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번역자는 ‘그녀’로 시작하는 도입부가 가지고 있는 원작의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첫 단어를 **she**로 번역하더라도 독자는 이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영어 독자는 3장에서 언급한 인칭대명사를 인식하는 두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를 통해 지시 대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영어 독자는 담화 내 문맥을 통해 지시 대상을 후에 발견하고 저자가 자주 제시하는 표현을 어떠한 문맥적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지시 대상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다. 첫 문장을 읽는 당시에는 지시 대상을 알지 못하지만 몇 단락이 지나면 지시 대상을 쉽게 인식하게

되며 그 대상이 중심인물이라는 저자의 의도도 그대로 전달받게 된다.

번역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의 중반까지 중심인물을 she로 번역하다가 두 번째 챕터 후반부에서야 '그녀'를 명시적으로 In-hye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에 등장하는 여성은 주로 인혜를 뜻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굳이 In-hye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혼동할 여지는 없다. 다음은 번역본의 두 번째 챕터의 시작 부분이다.

(ST 2)

버스는 언덕길을 돌아 두 갈래 길에서 멈춘다. 앞문이 열리자 그녀는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가 우산을 펼친다. 이곳에서 내린 승객은 그녀뿐이다. 버스는 지체없이 빗길을 달려 멀어져간다(한강 2007: 157).

(TT 2)

The bus pulls over as it turns up the hill. She steps down and opens her umbrella. She is the only passenger alighting here. Without delay, the bus races off down the road (Smith 2015: 128).

두 번째 챕터 직전 문단에 등장한 여성은 오직 인혜 뿐이다. 그러므로 영어 독자는 she가 인혜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3장에서 설명했듯이 영어 독자는 앞 절의 대상을 문법적으로 해당 대명사에 맞춰보면서 지시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she라고 해당 인물을 반복적으로 지시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당 대상이 초점화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4.2.2 '그녀'를 she(혹은 her)로 번역하지 않은 사례

4.2.1과 달리 번역자는 네 번째 챕터부터 도입부에 나타난 '그녀'를 she가 아닌 In-hye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네 번째 챕터의 도입부이다.

(ST 3)

탁탁탁탁, 활기찬 구둑소리를 울리며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온다. 그녀가 일어서서 인사하자 의사는 가벼운 목례를 던진

다. 큰 동작으로 팔을 뻗어 상담실을 가리킨다. **그녀**는 잡자코 의사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다(한강 2007: 170).

(TT 3)

Preceded by the sound of quick, purposeful footsteps, a young doctor wearing a white gown approaches from the other end of the corridor. He sketches a shallow bow when **In-hye** stands up to greet him, gesturing towards the consulting room with an expansive sweep of his arm. **She** follows him inside(Smith 2015: 139).

해당 챕터의 시작이 she가 아닌 In-hye로 표현된 데는 이전 챕터의 마지막 절에 나타난 여성이 동생 영혜였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법적으로 인칭대명사가 앞선 대상을 지시하므로 인혜를 she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다섯 번째 챕터의 도입부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챕터의 도입부이다.

(ST 4)

행려들과 정신지체환자들을 수용하는 별관 2동을 지나 **그녀**는 1동 현관 앞에 선다. 유리문에 붙어 바깥을 보고 있는 환자들이 눈에 띈다...(한강 2007: 175).

(TT 4)

She walks past the second annex and stops in front of the door to the first annex. She sees the patients pressing themselves against the glass door and peering outside...(Smith 2015: 144).

네 번째 챕터의 마지막 장은 인혜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챕터의 도입부를 she로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인혜를 지시하게 된다. 도입부의 ‘그녀’를 she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번역자가 인칭대명사의 선행사를 받는 문법적인 사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선행 대상과 관계 없이 번역자는 도입부의 ‘그녀’를 In-hye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전 챕터의 마지막 절이 인혜로 마무리되더라도 In-hye로 명시적으로 번역하였다. 다음은 열 번째 챕터의 도입부이다.

(ST 5)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의자로 돌아온다. 마지막 남은 밀폐용기의 뚜껑을 연다...(한강 2007: 202).

(TT 5)

Time passes.

In-hye sits back down. She opens the lid of the last container...(Smith 2015: 166).

소설 초반에는 인혜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다 중반으로 갈수록 동생 영혜의 비중이 높아진다. 「나무 불꽃」은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 구조인데 영어 텍스트에서는 주어 생략할 수 없고 인칭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생 영혜를 지시하는 **she** 또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혜와 영혜가 골고루 등장한 중반부터 번역자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그녀’를 명시적으로 **In-hye**로 번역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번역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⁴⁾

여기서 인혜와 영혜에게 **she**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원문의 ‘그녀’가 갖는 함의(중심인물의 초점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나무 불꽃」의 중심인물 초점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무 불꽃」은 전지적 3인칭 시점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서술은 일반적인 상황 묘사와 인혜의 심리 묘사로 나뉘볼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 묘사에서는 인혜와 동생 영혜, 주변 상황 등이 나타난다. 보기에는 상황 묘사가 꽤 객관적인듯 하지만 사실 인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혜를 묘사하거나, 인혜와 함께 있는 동생 영혜 혹은 인혜의 주변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상황 묘사는 인혜의 이동을 따르고 있다. 심지어 동생 영혜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인혜의 관점이 드러난다. “영혜는 눈을 빛냈다. 불가사의한 미소가 영혜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한강 2007: 186)처럼 3인칭 서술자의 관찰인듯 하지만 사실은 인혜가 바라본 동생 영혜의 모습이다. 심리묘사의 경우에도 인혜의 심리만 서술된다. 예를 들어 “차라리 눈이 안

4) 투리(Toury)(1980: 60)는 명시화(explicitation)를 번역의 보편적 자질 중 하나로 보았다.

보이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한다.”(한강 2007: 183)와 같은 내적 독백 표현이 그렇다. 이에 비해 동생 영혜의 심리는 행동이나 대화로만 드러날 뿐이다. Genette는 내적 초점화가 내적 독백 서술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즈넉 1972: 181), 「나무 불꽃」은 서술자의 입을 통해 인혜의 내적 독백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중심인물에 대한 초점화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나무 불꽃」은 ‘그녀’라는 표현 속 함의(중심 인물의 초점화) 외에도 상황 설명이나 내적 독백을 통해 주인공을 초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 번역에서는 ‘그녀’를 she(혹은 her)로 번역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인공의 관점에서 환경을 묘사하거나 내적 독백 서술을 활용하여 ‘그녀’가 가진 함의(중심 인물의 초점화)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상황 묘사와 내적 독백 서술을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예이다. 두 번째 챕터 중반부터 중심인물 인혜의 동생인 영혜가 등장하면서 she는 두 인물을 지칭하게 된다. 해당 예에서는 인혜와 영혜가 모두 she로 언급되고 있으며 TT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은 인혜를, 밑줄을 친 부분은 영혜를 가리킨다.

(ST 6)

영혜가 처음 이상해진 것은 삼년여 전 갑작스럽게 채식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채식주의자들이야 이제는 흔해졌지만 영혜의 경우 특이한 점은 그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체중이 빠졌고,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다곤 하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만큼 말을 잃었다. 제부는 물론 친정식구들 모두 그런 동생을 염려했다. 마침 그녀가 아파트를 옮겼을 무렵이었다. 집들이를 위해 친정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는 영혜의 뺨을 때리고,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한 뒤 고깃덩어리를 쑤셔넣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얻어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다. 영혜가 짐승같은 고향을 지르며 고깃덩어리를 뱉는 것을, 과도를 집어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것을 그녀는 딱딱하게 굳은 몸으로 지켜보았다(한강 2007: 166).

(TT 6)

Yeong-hye's increasingly odd behavior had become noticeable around three years ago, when she'd suddenly decided to turn vegetarian. She lost so much weight it was quite shocking to look at her, and she practically

stopped sleeping altogether. Yes, she'd always been quiet, but at that time she would say so little that any kind of meaningful communication was impossible. The whole family had been extremely concerned, their parents in particular. All this had happened shortly after In-hye and her husband had moved with Ji-woo to a new apartment. At the housewarming, when the whole family had got together, their father had struck Yeong-hye in the face, held her mouth open and forced a lump of meat inside. In-hye's body had jerked violently, as though she herself was the one receiving the blow. She'd stood and watched, stiff as a ramrod, while Yeong-hye howled like an animal and spat out the meat, then picked up the fruit knife and slit her own wrist(Smith 2015: 136).

해당 내용은 영혜의 이상한 행동과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관찰은 인혜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식주의자들이야 이제는 혼해졌지만”,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다곤 하지만” 등의 표현은 인혜가 느끼는 감정이다. 서술자가 3인칭 전지적이긴 하지만 사실 「나무 불꽃」은 철저하게 인혜의 내적 독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영혜의 남편이라 하지 않고 ‘제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서술자의 관점이 인혜의 시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번역자는 “제부는 물론 친정식구들 모두 그런 동생을 염려했다.”를 “The whole family had been extremely concerned, their parents in particular.”로 번역하였다. 번역자는 “제부는 물론 친정식구들”이라는 주어를 “The whole family”로만 번역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부”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중심인물의 관점을 반영하는 표현이 번역되지 못하면서 중심인물의 초점화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어 원문에서 ‘그녀’가 오직 인혜를 지칭한다고 본다면, 서술자의 초점이 인혜에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하지만 위의 영어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she는 인혜와 영혜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TT 6)에서 굵게 표시한 she는 인혜이고, 밑줄로 표시한 she는 영혜인데, 영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she가 더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단락의 초반에 영혜가 she로 언급되면서 후반부에서는 인혜를 뜻하는 ‘그녀’가 In-hye라는 고유 명사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원문의 ‘그녀’라는 표현이 갖는 중심인물의 초점화 기능⁵⁾은 사라졌다. 물론 후반부에 “**She**'d stood and watched, stiff as a ramrod, while Yeong-hye

howled like an animal”라는 표현에서 ‘그녀’를 she로 번역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영혜에게도 she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원문의 초점화는 재현되지 못한다. 하지만 영어 번역에서 서술자가 인혜의 심리에서 이야기한다는 점을 재현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TT 6)의 네 번째 줄에서 원문에 없는 Yes라는 내적 독백을 삽입한 것이 그 예이다. Yes라는 표현을 통해 서술자는 영혜를 예전부터 잘 알던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풍긴다. 여기서 영혜를 잘 알던 사람은 문맥상 인혜가 되므로 이러한 표현 삽입은 인혜를 중심인물로 초점화하는 기능을 더해준다.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가진 함의(중심 인물의 초점화)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내적독백이라는 원문의 서술에 집중함으로써 그 함의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인터뷰를 통해 번역자는 단어 선택이나 통사적인 부분에서의 충실성은 독자가 경험할 원문을 재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원문의 예술성과 질에 있어서 충실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 같은 인터뷰에서 번역자는 번역본 또한 훌륭한 영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영어 독자를 고려한 번역을 한다고 번역 전략을 밝혔는데(Charles Montgomery 2014. 6. 15), 결국 영어 독자의 가독성에 맞게 표현하면서도 원문의 예술적 가치를 재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번역자의 이러한 전략이 잘 드러나는 ‘그녀’번역이다.

(ST 7)

막내동생 내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영혜를 버릴 수 없었다(한강 2007: 169).

(TT 7)

The two sisters' younger brother Yeong-ho and his wife were no different. But **she, In-hye**, could not bring **herself** to abandon Yeong-hye(Smith 2015: 139).

번역자는 ‘그녀’를 she, In-hye로 표현하였다. In-hye라고만 옮겼을 때 사라

5) 한국어에는 본래 ‘그’, ‘그녀’가 없었으나 소설 텍스트를 통해 해당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그’, ‘그녀’라는 표현 자체에 3인칭 대명사 기능 외에도 초점 표지라는 추가적인 기능이 생겨났다(안소진 2008).

질 수 있는 '그녀'의 함의를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독자의 이해를 위해 명시적으로 In-hye를 바로 삽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번역자가 위의 예시들처럼 원문의 서술적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설의 '그녀'가 가진 서술적 초점화를 뚜렷이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술적 분위기나 느낌은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소설에서 '그녀'라는 표현이 중심인물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는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영어 번역에서 '그녀'가 인혜가 아닌 동생 영혜로 번역된 부분이다.

(ST 8)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잊지 않는다. 대신 팔을 뻗어 동생의 인중에 집게손가락을 얹는다. 가느다랗고 따스한 숨이 느리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간지럽힌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히 경련한다(한강 2007: 203).

(TT 8)

Instead of completing the thought, **she** reaches out and touches **her** index finger to **her** sister's philtrum. A faint breath tickles **her** finger, warm and regular. Yeong-hye's lips twitch minutely(Smith 2015: 167).

(ST 8)의 마지막 '그녀'는 Yeong-hye로 번역되었다. 「나무 불꽃」의 모든 '그녀'가 인혜를 가리킨다는 점과 (ST 8)의 마지막 문장의 선행 대상이 인혜라는 점에서 마지막 문장의 '그녀'는 인혜가 되어야 한다. 물론 ST 작가가 갑자기 해당 부분만 영혜를 의미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 속 다른 중편 소설인 「채식주의자」에서 여러 인물에게 '그녀'를 사용한 방식을 보면 앞 문장의 대상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채식주의자』의 첫 번째 중편소설인 「채식주의자」에서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에 '그녀'가 사용된 방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비교 예시 1)

저형이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화장품가게의 수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였다. 그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점포를 세 배로 넓혔고, 출산 후에는 밤에만 잠깐씩 들러 가게를 운영해왔다(한강 2007: 44).

(비교 예시 2)

절망한 장모의 젓가락이 거두어졌다. 늙은 그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한강 2007: 48).

『채식주의자』의 첫 번째 중편소설인 「채식주의자」에는 중심인물이 동생 영혜이다. 영혜의 남편이 1인칭 시점에서 서술을 하는데, 주로 ‘그녀’는 영혜를 가리킨다. 하지만 본고의 사례인 「나무 불꽃」과 달리 주변 인물도 ‘그녀’로 가끔 언급이 되는데 (비교 예시 1)과 (비교 예시 2)의 예처럼 앞 문장에 나타난 여성을 지시 대상으로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그녀’ 사용 방식을 유추해 볼 때, 「나무 불꽃」(ST 8)의 마지막 문장 속 ‘그녀’가 주변 인물인 영혜가 되려면 앞 문장에 영혜가 언급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앞 문장에 나타난 ‘그녀’도 인헤이므로 영혜로 보기는 힘들다. 만약 작가가 아무런 선행 대상 없이 갑작스럽게 영혜로 표현하였다면, 서술자의 시점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작품 내내 인헤를 초점화하며 흘러오던 이야기가 한 곳에서만 영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비춰 볼 때 번역자는 「나무 불꽃」의 ‘그녀’가 소설 전반에서 중심인물인 인헤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소설 번역에서 중요한 점은 문학성의 등가를 재현해 내는 것이다. 한국 소설의 ‘그녀’는 문학적 함의를 지닌 표현으로,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찾기가 힘들다. 영어의 인칭 대명사와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문법적으로 그리고 독자의 이해도 면에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설 속 함의도 다르다. 한국 소설에서 ‘그녀’가 중심인물만을 지칭할 경우에는 서술자가 해당 인물을 초점화하는 기능이 생겨난다. 이러한 기능은 근대 한국 소설에서 이전에 없던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생긴 것인데, 영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능이다(안영희 2001: 168).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자는 영어의 인칭대명사를 또 다른 명칭으로 옮기거나 그저 영어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속 세 번째 중편소설인 「나무 불꽃」과 테 보라 스미스의 “Flaming Trees”를 상호 비교하였다. 특히 원문의 ‘그녀’ 표현이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나무 불꽃」 속 ‘그녀’는 오직 인혜라는 중심인물에게만 사용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중심인물의 초점화가 나타난 전형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번역자는 첫 챕터의 도입부에서 ‘그녀’를 she로 그대로 번역하였다. 앞에 지칭하는 대상이 없음에도 a woman이 아닌 she로 번역함으로써 영어 독자들에게 중심인물을 유표적으로 인식시켰다. 두 번째 챕터의 도입부에서 ‘그녀’가 she로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챕터에 중심인물 외 다른 지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심인물의 동생인 영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녀’의 번역이 명시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영어 번역본에서 인혜와 영혜가 골고루 she로 사용된 이후에는 번역자는 챕터의 도입부를 In-hye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챕터의 지시 대상이 인혜인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영어 독자의 이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어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는 와중에도 번역자는 원문의 서술적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번역자는 ‘그녀’를 원문처럼 she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서술의 내적 독백을 최대한 살려 중심인물을 부각하였다. 3인칭 서술자의 관점이 중심인물이 보고 듣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는데, 원문에는 없는 Yes라는 내적 독백 표현이 서술 중간에 등장하면서 서술자의 관점이 중심인물의 관점과 일치한다는 암시가 생겼다. 그리고 때때로는 원문의 ‘그녀’가 그대로 표현되면서 ‘그녀’의 중심인물 초점화라는 함의가 살아나기도 하였다. 원문의 ‘그녀’를 she, In-hye라고 번역한 사례에서는 원문의 작가 의도와 독자의 이해도가 동시에 고려되기도 하였다.

한편 번역자는 소설 속 ‘그녀’가 한 인물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다. ‘그녀’를 중심인물이 아닌 중심인물의 동생(영혜)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다소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자가 소설의 ‘그녀’가 가진 중심인물 초점화라는 함의를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In-hye로 표현하기 보다는 she(혹은 her)로

표현하려 노력하고 Yes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어 소설 속 ‘그녀’라는 표현이 주는 소설적 분위기나 느낌은 유지되었다. 원문의 예술성과 질에 있어서 충실성을 추구한다는 번역자의 전략이 엿보였다.

본 연구는 원천 텍스트에 대한 한 가지 버전의 번역본 사례를 연구하였다. 여러 가지 번역본을 동시에 비교할 때 더 많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한국 소설의 다양한 영어 번역본을 찾기가 힘들어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의 수상에 시작으로 많은 한국 현대 소설의 번역과 다양한 버전의 번역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소설 속 초점화된 ‘그녀’가 여러 가지 버전의 번역을 통해 비교 분석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이강선 (2016) 「고맥락에서 저맥락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57: 277-312.
- 이기문 (1978) 「국어의 인칭대명사」, 『관악어문연구』 3(0): 325-338.
-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 이형진 (2016)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번역학연구』 17(3): 139-164.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문법론』, 서울: 집문당.
- 권택영 (1995)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김일환 (2013) 「텍스트 유형과 어휘의 사용 빈도」, 『언어와 정보사회』 19(0): 161-201.
- 박현수 (2002) 「과거시제와 3 인칭대명사의 등장과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20(0): 117-145.
- 신혜정 (2017)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657-666.
- 안소진 (2008) 「소위 3인칭 대명사 ‘그, 그녀’의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학』 38: 145-164.
- 안영희 (2001) 「삼인칭 대명사 He/She의 일본어 한국어 번역」, 『일본어문학』

17(1): 147-172.

즈넨트 제라르 (1972) 『서사담론』 권택영 옮김 (1992), 서울: 교보문고.

한강 (2007) 『채식주의자』, 파주: 창비(Changbi Publishers).

Han, Kang (2007) 2015. Translated by Smith, D. *The Vegetarian*, London/New York: Hogarth.

Kolln, Martha and Loretta Gray (2012) *Rhetorical grammar: Grammatical choices, rhetorical effects*, Boston: Pearson.

Landers, C. E. (2001)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Vol. 22),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Nappa, Rebecca and Jennifer E. Arnold (2014) 'The road to understanding is paved with the speaker's intentions: Cues to the speaker's attention and intentions affect pronoun comprehension', *Cognitive psychology* 70: 58-81.

Neubert, Albrecht and Gregory M. Shreve (1992) *Translation as tex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인터넷 자료>

김보경 (2016. 3. 16) 「'채식주의자' 번역 데보라 스미스 "번역은 시와 같다"」 『연합뉴스』 2018년 7월 29일 검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5/0200000000AKR20160315191000005.HTML>.

황주원 (2016. 6. 15) 「[인터뷰] 맨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한국문학의 세계화 가능성 크다"」 『인터뷰 365』, 2018년 7월 29일 검색. <http://interview365.mk.co.kr/news/74767>.

Charles Montgomery (2014. 6. 15)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 (The Vegetaria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11th November 2016. Available at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Abstract]

**A Study on Third Person Pronoun ‘kunye’ in
Korean-to-English Novel Translation:
A Case Study of the Novel *The Vegetarian***

Park, Mi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third person pronoun ‘그녀’ (‘kunye’) performs a narrative function in Korean novels for a female character. When it is exclusively used for one central figure, the expression causes readers to recognize the figure as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This focalization is maximized by inner monologues of the narrator. “Flaming Trees” of *The Vegetarian*, a Korean fiction by Kang Han, follows this mechanism in terms of the usage of ‘kunye’. The English translation, however, cannot mirror the function because the corresponding pronoun, ‘she’ (or ‘her’) does not have the same implication in English text. Thus, the translator frequently had no choice but to change the pronoun into explicit expressions such as the character’s name rather than using the corresponding word, ‘she’ (or ‘her’). This paper analyzes how ‘kunye’ was translated and interprets the outcomes based on the manner of understanding English text from its readers’ viewpoint. This study also considers the expression choices of transl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the translator, Deborah Smith. When ‘kunye’ was translated into the main character’s name, the focalizing function was usually dismissed. Yet, focalization was compensated for via an inner monologue expression which also has a focalizing function. The inner monologue expression was realized as per the translator’s discretion.

- ▶ Key Words: focalization, inner monologue, the third person pronoun 'she', the third person pronoun 'kunye' (그녀), *The Vegetarian*, novel translation
- ▶ 주제어: 초점화, 내적 독백, 3인칭 대명사 'she', 3인칭 대명사 '그녀', 『채식주의자』, 소설 번역

박미정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생

a-sudden-shower@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소설번역, 체계기능언어학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